

美, 군사·외교 총동원 대북 전방위 압박

중국·러시아와 함께 北 고립
유엔 안보리 고강도 제재 결의
한반도에 전략자산 지속 전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급증 중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향해 전방위로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가용한 군사·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압박의 결정적 열쇠를 쥔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임기 말 마지막 국정연설을 통

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기존의 핵포기 약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아웃캐스트’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은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던 2005년(9·19 공동성명 지칭)으로 돌아가고 기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16일께 일본 도쿄에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차관회의를 갖고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과의 협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차관회의에 앞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중반 서울로 찾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한·미·일 공조에 더해 중국의 적극적 대북압박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이 어떤 식으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일명 펜타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역격력을 보여주기 위해 주요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의회는 이번 주중으로 초당파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 맷 새먼)는 13일 미국 하원 레이벌빌딩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상·하원 지도부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들을 상·하 양원회의의 조정 절차를 거쳐 병합해 처리하거나 ‘선(先) 하원, 후(後) 상원’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지난 7일 이번 주중으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8동양의 콜럼버스 장건

장건(張騫, ?~BC 114)은 중국 사상 최초로 서역 교통로인 실크로드를 개척한 인물이다. 한 무제의 밀명을 받아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와 교류의 물고를 틈 위대한 모험가다.
 그는 무제의 시종인 낭관이라는 말직에 있었다. 그에게 서역을 탐색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은 무제의 대 흉노정책 때문이다. 북방의 흉노는 한나라 건국 이래 가장 큰 위협 요인이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경을 압박했다. 한고조는 친히 출전하여 평성에서 일전을 벌였으나 참패했다. 즉위한 무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흉노 정벌이었다.
 무제는 어느날 흉노의 포로로부터 “한나라 조정에서 섬멸하려는 우리 흉노에게는 월지라는 천적이 있다”는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월지는 세력이 약해 흉노에게 국왕이 살해당하는 등 고통을 당해왔다. 힘이 약한

를 원치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귀국 길에 나섰다. 그러나 다시 흉노에 잡혀 1년여 인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혼란 틈을 타 가족을 데리고 장안으로 돌아왔다. 13여년간의 억류생활 끝에 한나라에 복귀한 것이다. 그의 충성심에 감동한 무제는 그를 태중대부로 임명했다.
 무제는 그에게 병력을 주어 수차례 흉노와의 전투에 나가도록 하였고 수시로 서역 주변 나라들의 정세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BC 123년 박망후가 되었다. 널리 세계를 관찰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BC 119년 그는 두 번째 서역행에 올랐다. 중랑장에 임명되어 많은 재물과 300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서역국가들을 방문해 외교관계를 트는 것이 목적이었다.
 오손, 대안, 강거, 안식(지금의 이란) 등과 외교관계 및 교역을 개시했다. 특히 대원국에서는 말리면 피가 뿜어져 나온다는 명마인 현혈마(汗血馬)를 구해 무제에게 진상하였다. 무

실크로드 개척한 위대한 모험가

월지는 흉노를 피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주변으로 이주해야 했다. 무제는 월지가 흉노 정벌의 중요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가 최초의 사절단장에 임명되었다. 사기 대완전에는 “장건은 의지가 강하며 견실하게 일에 임하였고 마음이 넓으며 사람을 신뢰했다”고 그의 인품됨을 평하고 있다.
 BC 139년 그는 흉노 출신 감보를 길잡이 삼아 100여명을 이끌고 장안을 출발했다. 길을 떠난 일행은 하서 지역에서 흉노에게 포로가 되었다. 흉노의 지도자 군신선우는 “흉노가 한나라의 영역을 지나 남방의 월에 사신을 보내고자 하면 한나라가 감히 허락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행을 억류시켰다.
 10여년간 억류되는 동안 장건은 흉노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다. 흉노는 더이상 그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게 되었고 감시도 소홀해졌다. BC 128년 그는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대완국을 거쳐 월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억류기간동안 월지의 정세가 크게 바뀌었다. 대하(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정복하여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월지는 더 이상 흉노와 전쟁의 참화

제가 크게 기뻐했음은 물론이다.
 그는 서역에서 반평생을 바쳤다. 그의 서역권 개척은 후대에 많은 유산을 남겼다. 첫째로 서역과 중국과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확산되었다. 장건의 여행 이전에는 중앙아시아 문화권과 중국 문화권이 접촉 없이 상호 단절되었다. 둘째로 교역과 문화교류가 촉진되었다. 포도, 석류, 산호 등 진기한 물건이 중국으로 수입되었다.
 중국은 철강 제련기술, 우물 시추기술 등을 전파해 주었다. 특히 한나라의 견적물은 로마에까지 전파되어 유럽인의 찬사를 받았다. 셋째로 장건의 서역 개척으로 중국인의 국경 개념이 확장되었다.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이때 처음으로 중국의 영토 개념에 포함되었다.
 그는 두 번째 오손 사절에서 돌아온 BC 115년 대행으로 임명돼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그 다음해 세상을 떠났다. 동양의 콜럼버스라고 불리는 장건이 개척한 서역으로 가는 길은 후일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 호펜에 의해 실크로드(비단길)로 명명되었다. 사마천은 그를 ‘서역으로 가는 길을 뚫은 사람’으로 평했다. 장건의 모험이 동역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월지는 더 이상 흉노와 전쟁의 참화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 추궁
중국, 대북 단독 제재안 검토
원유 공급 중단은 빠져

중국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북한에 대해 대(對) 중국 투자 제한,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 추궁이라는 새로운 단독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북중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의 중국내 식당 운영, 북한노동자 송출 등 대중(對中) 투자 사업의 목적을 죄고 접경지역 환경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중국은 그간 취해온 독자적 대북제재안에 이 두가지의 새로운 제재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또 “중국 당국이 유엔 결의를 통한 다자간 대북 제재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제재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은 고려 대상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원유 공급 중단이 가져올 결과에 우려하면서도 자국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내부적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런 수준의 새로운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서도 중국은 북한 기관들의 외화 벌이 수단인 중국내 북한 식당, 노동자 송출 등 대중사업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괴롭히지 말라” 10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여성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앞서 독일 쾰른의 새해맞이 행사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 다수가 난민 신청자로 드러나면서 난민 포용 정책을 내세웠던 메르켈 정부와 유럽의 난민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함부르크 경찰은 지난 연말연시 축하모임에서 성폭행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 13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 몰라?” 호주 카지노 재벌, 보안요원에 ‘갑질’

호주의 카지노 재벌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이유로 소유 카지노에서 일하는 보안요원에게 폭언하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해 송사에 휩쓸리게 됐다.
 호주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제임스 패커(48·사진)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점심 무렵 회사 고위간부와 함께 자신 소유의 카지노인 ‘크라운 펠버른’ 게임장에 들어가려다 뜻밖에 저지를 당했다.

패커는 몸모양을 가로막는 60살의 보안요원 이스칸다르 차반과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폭언을 하고 몸을 밀쳤으며 바로 해고하겠다는 위협도 했다고 호주 언론은 11일 보도했다.
 카지노 측은 10일 “새해 첫날에 보안요원의 착오로 경미한 일이 일어났다”고 카지노 소유자와 보안요원 간의 충돌을 인정했다. 차반은 용역업체 파견



시켰으며 이번 일과 관련해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6층, 70평, 즉시 임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시세-1억5천만원, 매매-1억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 5백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1천만원, 매매-500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1천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

“급 매”

싸고 좋은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